

동양축산(주)

유명 브랜드
인제 식품



박달도령과 금봉아씨의 사랑터 박달재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북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여 동측은 단양군, 서측은 충주시, 남측은 문경시, 북측은 원주시, 영월군과 접해있고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 유명하다.

박달도령과 금봉아씨의 전설이 내려오는 박달재는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을 갈라놓은 험한 산을 지칭하며, 박달재의 끝자락엔 천혜의 자연환경을 뒤로하며 박달재LPC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난다.

연혁

1976년 서울식품상사로 출범한 동양축산은 1990년 10만평의 부지에 1,200두 규모의 박달재한우마을 시범복장을 설립하여 우수한 원료육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2000년엔 (주)박달재한우마을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을 준공하였다.

이로써 생산(시범복장), 도축 및 가공

(박달재LPC), 유통(동양축산)의 전 공정을 아우르는 현재의 동양축산이 완성되었다.

박달재한우마을 시범목장

해발 1,078m 백운산 기슭의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지역에서 운영중인 한우목장에서는 지하 14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광천수와 10만평 규모의 초지에서 무공해로 자란 양질의 목초를 급여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특수 주문사료로 과학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28~30개월 장기 비육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가진 축산물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고품질 원료한우 및 원료돈 확보를 위한 계열화사업

예로부터 원료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충북 제천을 중심축으로 인근지역인 단양, 충주, 음성을 비롯한 충북지역, 강원 남서부지역, 경북북부 지역인 영주, 예천, 문경, 봉화 등 원료의 품질이 뛰어난 지역의 축산농가들과 계약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직영농장과 동일한 사육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주문사료를 체계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철저한 위생관리 기술지원으로 최고급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도축·가공 설비를 갖춘 박달재LPC

2000년 도축장 부문에 이어 2001년 육가공 부문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했으며, 또한 국제 생산성본부에서 국제규격인 ISO 9001을 획득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제적 위생기준을 능가하는 최고의 도축 및 가공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겠다는 경영이념과 맞물려, '02년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04년에 박달재LPC가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시행 식육가공장으로, 동양축산이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대상업체로 동시에 지정이 되었다.

'05년 10월, 11월의 전국 부분육 상장 물량인 133,137박스 중 16%이상인 21,535박스가 동양축산의 이름으로 전국에 유통되었다.

식육유통의 선두주자 동양축산

30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내 식육유통업계의 선두주자로 직영목장과 직영도축장을 바탕으로 생산된 최고급 제품을, 국내 유명백화점의 식육전문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직접 제공하며 대형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급식 전문업체에 양질의 원료육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돼지부문 동상을 수상한 천안 진왕영농조합법인의 동설백포크를 도축·가공하여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유통시키는 개가를 이루었으며, 이는 동양축산만의 위생적인 선진시스템과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탄탄한 유통망이 응집된 결과로 풀이된다.

30년의 전통과 선진시스템의 접목으로 21세기 선도

동양축산은 축산물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선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악한 국내 축산물의 유통기반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전문기업으로 계열화하여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30년의 오랜 전통과 접목된 선진시스템으로 급변하는 국내 축산업의 중심점이 되어 우리 먹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든든한 버팀목으로 동양축산이 계속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